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

분문: 요한복음 2:23-25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참 믿음이 아닌지를 아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구원의 믿음인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단지 기적만을 바라보는 믿음인지를 아신다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주고 예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자.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은혜를 알기를 원한 것이다. 곧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에게 비추이기를 원한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비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영광의 빛이 은혜로 우리에게 비추어질 수 있는가?

24절 끝에서와 25절에 답이 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세 가지 언급이 있다. 첫째, 24절에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의미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둘째는 25절에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삶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을 말한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세 번째는 25절이 함축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영광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전지의 영광이요, 둘째는 전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다.

1. 예수님의 전지의 영광

여기에서 우리가 끌어 낼 수 있는 교리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 지식으로부터 제외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그의 지식으로부터 제외 될 수 없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6:64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은 여기에서 설명을 더 붙인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환히 보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배반 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그를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났던 분이시다. 때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깊이 꿰뚫어 보는 지식을 가진 경우도 있다. 사람의 동기를 분별해 내고 각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 맞춘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식은 종종 틀릴 수가 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것은 100% 진실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감출 어떤 비밀도 없다.

만약에 당신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전지의 영광은 더욱 분명하게 들어날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비밀은 없다는 것이다. 땅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당신의 삶의 어떤 것을 감추는데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감출 수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당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매우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알려진 사람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님이 당신에 관하여 모르신 것이 없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항상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분,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과 당신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당신을 볼 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과 관계를 맺고 산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의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을 적나라하게 알고 계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삶이 얼마나 진실해 질 수 있겠는가? 또한 당신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전지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되고 거룩해 질 것이다.

전지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 하신 후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세 가지 대답을 아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세 번 하셨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를 세 번 부인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이었다. 두 번째의 대답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이다. 그의 세 번째, 대답은 “주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이다(요한복음 21:15-17).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지신에 대하여 잘 아신 것을 알았다. 것처럼 자신을 잘 알고 계신 분 앞에서 그의 대답은 거짓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전지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갈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 가면 알 아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2. 전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

우리는 때로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약간 긴장을 한다. 두렵기까지 한다. 나의 약점까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때문에 나를 허물 하시거나 정죄하지시 않으신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서로 허물을 덮어 주고 사랑한다. 그래서 서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내 보다 나의 남편 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시지만 정죄 하지시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를 의지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약적 사랑이란 그는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똑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17:9에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 이들은 그의 친구다. 이들은 그의 제자이다. 이들은 그의 양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들은 중생한 자들이다. 이들은 믿는 자이다. 당신은 그들 가운데 속했는가?

“그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만약 당신이 그를 영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다. 당신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아실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신다. 25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 본대로 “예수님은 누구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의 증거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요한복음 16:30).

주님의 전지의 영광의 빛, 또한 우리를 잘 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에 레이져 광선처럼 비추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잘 알고 있다.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함으로 믿지 않는자는 믿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이미 믿는 사람은 계속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영혼에 깊이 비추임을 경험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1:12, 2:11, 2:22에서 요한 사도가 믿음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영혼속에 깊이 비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